식품산업 앵커기업 육성한다

전북도, 민간주도형 지역기업육성사업 공모 선정
국비 9억4천만원 확보… 주력산업 혁신성장 모델 구축

전북도가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하는 2019년 민간주도형 지역기업육성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9억4000만원을 확보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역혁신기관 보유 역량을 활용하여 기업별 성장전략에 따른 상향식 접근방식(Bottom-up approach)로 맞춤형 기업지원을 진행하는 것으로, 지역의 주력산업분야 혁신기업의 성장을 촉진,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올해 처음 시행된 사업이다.

또한, 기존의 정부 중심의 단발성, 비연속적인 공급자 중심의 사업에서 벗어나, 민간에서 주도하는 지역기업 육성 주체가 혁신기업을 발굴하고 맞춤형 지원방안을 수립 지원하는 형태의 시범사업으로, 핵심역량을 갖춘 타겟기업 중심의 집중 지원으로 지역 내 앵커기업으로 육성하도록 기획됐다.

도는 전북생물산업진흥원(이하 생진원)을 주관기관으로 도내 농생명 식품산업의 중소기업 10개사를 지원해 앵커기업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지난 4월부터 지역사회와 동반성장하는 도 주력산업분야 지역혁신기업 발굴을 위해 생진원에서 도내 농생명 관련 기업을 지원대상군으로 설정하여 매출액 및 산업 트랜드를 분석해 매출액, 고용, 수출, R&D성과 등 기업역량을 평가하여 참여 기업 10개사를 선정했다. 선정기업은 고려자역식품, 미와미, 은성푸드, 두손푸드, 코엔에프, 팜조아, 효성그린푸드, 대풍년, 무주군약초, 청맥 등이다.

도는 이번 공모로 참여기업에게는 '기술집약형', '고속성장형', '동반성장형'의 유형별 성장전략에 따라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혁신성장을 위해 제품고급화, 공정품질개선, 해외인증 등 기술혁신지원과 해외진출 전략수립, 디자인지원, 전시회 참가 등 사업화지원 및 해외시장 개척 프로그램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이남섭 도 기업지원과장은 "이번 민간주도형 지역기업육성사업을 통해 우리 도 주력산업분야 지역혁신기업들의 기술경쟁력을 향상시켜 매출신장과 일자리 창출이 이뤄져, 참여기업들이 지역경제 발전을 주도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남녀공용화장실 분리비용 지원해 드립니다"

전북도, 민간 개방화장실 남녀분리 지원사업 추진

전북도는 올해 민간 남녀공용화장실을 남녀분리 화장실로 개선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남녀 공용화장실이 범죄에 취약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국민이 제안하고 국가가 시행하는 국민참여예산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도민의 이용불편이 높은 민간 남녀공용화장실의 출입구를 분리 설치해 사용자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된다.

사업 추진방식은 사업 신청자가 해당 시·군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심의절차를 거쳐 선정된 대상자에게 화장실 남녀분리 설치비용의 50%(국비 25%, 지방비25%, 최대 1000만원 지원)를 지원하는 것으로, 도는 올해 28개소에 2억8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설치비용은 남녀공용화장실을 남녀분리 화장실로 공사를 완료하고 사업비 집행내역 등 공사 관련 구비서류를 갖춰 시군에 보조금을 신청하면 공사비의 50%(최대 1000만원 한도)를 지급받게 된다.

허태영 도 물환경관리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도민이 안심하는 화장실 문화가 확산되고,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화장실을 이용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태풍 '프란시스코', 전북도 큰 피해 없어… '레끼마' · '크로사' 진로 예의주시

전북도는 제8호 태풍 '프란시스코'에 의한 강풍피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제9호 태풍 '레끼마'와 제10호 태풍 '크로사'가 북상하고 있어 태풍진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기상 상황에 따라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24시간 상황관리를 유지한다고 7일 밝혔다.

도는 태풍 등에 따른 집중호우 시 하천 둔치주차장에 주차한 차량은 사전 이동주차가 필요하며, 하천·계곡 등 위험지역에서 야영이나 물놀이를 멈추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승구 도민안전실장은 "도민들께서도 태풍예보에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 태풍특보가 발효되면 강풍과 호우에 대비해 하천·해안가 등 위험지역 출입과 외출을 자제하여 주시고, 산사태 우려지역 주민들은 안전한 곳으로 사전에 대피해야 하며, 저지대는 침수에 대비하여 배수로를 점검할 것"을 당부했다. /김진성 기자

전북스포츠과학센터, 도핑 방지 교육 실시

전북스포츠과학센터가 학생 선수를 대상으로 도핑(Doping) 방지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7일 전북체육회(회장 송하진)에 따르면 이날 우석고에서 전북중·우석고 유도 선수 등을 대상으로 '스포츠 도핑 방지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서 한국도핑방지위원회 권현석 강사가 초빙 돼 금지약물과 도핑방지규정, 약물에 따른 부작용 등을 세부적으로 설명했다.

권현석 강사는 "장기간 약물을 복용할 경우 선수의 생명을 위험하게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권 강사는 "도핑방지는 선택이 아니라 선수들의 건강과 공정한 경쟁을 위한 것이다"며 "올바로 이해해 공정한 스포츠 문화가 확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북스포츠과학센터 이영란 센터장은 "도핑으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점을 인식하는 소중한 기회가 됐다"며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도핑에 대한 인식을 환기시켜 우리 선수들이 정정당당하게 실력을 겨룰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스포츠과학센터는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지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장은성 기자

전북소방본부가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중국인 관광객 770여명을 대상으로 명실상부 전국 최고의 안전체험 시설인 전북119안전체험관에서 재난종합체험, 위기탈출체험 등 안전체험교육을 진행했다.

세계로 뻗어나가는 독창적인 안전체험 '각광'

전북119안전체험관, 외국 관광객 핫플레이스로 급부상
중국 · 베트남 · 방글라데시 등 단체 체험객 국가도 다양해져

전북소방본부(본부장 마재윤)는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중국인 관광객 770여명을 대상으로 명실상부 전국 최고의 안전체험 시설인 전북119안전체험관에서 재난종합체험, 위기탈출체험 등 안전체험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30도를 훌쩍 넘는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전북119안전체험관에 방문한 중국 단체 체험객들은 태풍·지진 등 자연재난부터 화재·교통안전 등 사회재난까지 다양한 재난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직접 몸으로 체험하며 구슬땀을 흘렸다.

특히 비행기를 타고 온 관광객에게 항공기 비상탈출 체험은 큰 호응을 받았다.

체험에 참가한 왕칭하(15세) 학생은 "전북119안전체험관에서 '안전체험'이라는 잊지 못할 경험을 한 것이 중국에 가서도 두고두고 생각날 것 같다"며 "중국에도 전북119안전체험관과 같은 안전체험을 할 수 있는 곳이 생겨 친구들 모두가 즐겁고 유익하게 안전에 대해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안전체험은 전라북도와 14개 시·군, 관광업계(여행사) 주관으로 지난 4월 개최한 '전북 트래블마트' 홍보상담을 통한 성과로, 7월 방글라데시 관광객 40여명을 시작으로, 이달 5일 중국 관광객 650여명이 체험을 마쳤으며, 앞으로도 중국 관광객 400여명과 베트남 관광객 50여명이 전북119안전체험관을 찾기 위해 예약을 마친 상태이다.

전북119안전체험관 소재실 관장은 "전북 트래블마트에 참가한 인바운드 여행사들과의 상담을 통해 성사된 이번 중국 단체 관광객 안전체험이 외국 관광객들에게 단순한 관광이 아닌 '안전관광 테마상품'이라는 관광의 새로운 대안을 제시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전북119안전체험관만의 독창적인 스토리텔링 형식의 안전체험이 세계로 뻗어나가는 하나의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더욱 힘쓸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2013년 전북 임실에 개관한 전북119안전체험관은 개관 이래 매년 체험객이 15만명을 상회할 정도로 큰 인기를 끌고 있으며, 올해 체험객 역시 16만명을 훌쩍 넘어설 정도로 전국 최고의 안전체험시설로 각광받고 있다. /김윤상 기자

세계 청소년들, 태권도 매력에 '흠뻑'

태권도진흥재단, 'ISF 청소년스포츠캠프' 태권도 체험 큰 호응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이상욱)은 국제스포츠전략위원회(이사장 유승민)와 함께 ISF 청소년스포츠캠프(이하 캠프) 참가자를 대상으로 7일 태권도 체험을 진행했다.

지난 5일부터 경기대학교 수원캠퍼스에서 진행되고 있는 캠프에는 대한민국, 러시아, 미국, 중국, 우크라이나 등 40여명의 청소년들이 참가 중이다.

이들 청소년들은 각국에서 육상, 레슬링, 쇼트트랙 종목 등의 선수들로 올림픽종목 체험의 일환으로 태권도를 경험했다.

이날 태권도 체험은 태권도진흥재단 정고은·남재훈 지도사범에 의해 발차기와 지르기 등의 '기본자세'와 음악과 함께 배우는 '태권힐링체조'를 통해 흥미를 가지고 태권도를 접하는 시간으로 진행되었다.

한편, 캠프에 참가한 청소년들은 장홍(중국)·이신바예바(러시아) IOC 위원의 리더십 특강과 탁구·브레이킹 댄스 등의 올림픽 종목체험, 한국문화예절교육 등을 진행했고, 유승민 IOC위원의 올림픽가치교육, 2018평창 현장 탐방 등의 일정을 남겨두고 있는 가운데 캠프는 10일 종료된다. /무주=전문선 기자

환영 스피치, 긴장해소, 면접, 웃음치료 모집

현대는 소통의 시대, 능력의 시대, 이미지 시대, 감성의 시대입니다.
스피치학의 이론과 실기의 정통기법을 전북에서 최초로 개척한 김양옥입니다.
현대인의 필수로 자리 잡은 본 과정에 주저하지 마세요.
저렴한 등록금으로 주, 야반으로 학습합니다.

▶ 전담교수 주요경력 ◀
- 전주교육대학교 겸임교수
- 전북대 토론과 면접 담담교수 역임
- 스피치자격시험 검정위원장
- 한국스피치, 웅변협회 전북회장
- 전북인재교육원 및 기관, 단체 특강교수
- KBS TV, MBC TV, JTV 출연 및 강의자
- 스피치 칼럼리스트
- 저서 "365스피치커뮤니케이션", "나를 세운 말,말,말", "스피치 노하우" 등

〈2019학년도 2학기 모집〉

학교별	주요 과정	지역별(자유선택)
전북대학교 평생교육원	스피치 기법과 리더쉽, 스피치 최고지도사 · 스피치&긴장해소(주,야)	전주, 완주, 김제, 진안, 무주
군산대학교 평생교육원	스피치 기법과 리더쉽, 스피치 최고지도사 · 스피치&긴장해소(주,야)	군산, 서천, 부안
전북과학대학교 평생교육원	스피치 지도사(기초+고급) 야간	정읍, 고창
전북대 익산캠퍼스(평생)	스피치 기법&긴장해소(야)	익산, 김제
남원스피치 평생아카데미	스피치 기법과 리더쉽(야), 스피치 최고지도사(야)	남원, 순창, 장수, 구례
우석대학교 평생교육원	스피치 기법과 리더쉽(야), 스피치&긴장해소(야), 최고지도사(야), 웃음치료(주)	전주, 완주, 진안, 김제
전주교육대학교 평생교육원	고품격 스피치기법(야), 스피치 긴장해소(야)	전주, 임실, 완주
한국 스피치, 면접 아카데미	주말반, 개인지도, 면접이론, 실기과정(취업)	전북, 전남, 충남지역

상담전화: 063-285-6676, 231-6669, 010-7304-5665(주, 야)
1차 마감: 8월 21일까지입니다.